

충남지역 구석기유적의 조사성과와 과제

한 창 균

(한남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충남지역 구석기유적의 조사성과와 과제

한창균(한남대학교)

- I. 머리말
- II. 유적 조사와 발굴
- III. 조사성과의 검토
- IV. 앞날의 과제

I. 머리말

1930년대 함경북도 두만강 연안의 강안리(옛지명, 동관진) 유적에서 구석기 시대의 많은 동물화석과 몇 점의 석기가 발굴되었으나, 이 유적의 시대적인 성격은 1950년대 말에 이르러 비로소 인정을 받기 시작하였다. 선사시대의 여러 유적이 그렇듯이, 한국에서 구석기유적이 제대로 조사되어 알려진 것은 해방 이후의 일이다.

1963년에 조사된 굴포리 유적은 북한 학자들이 유물사관에 입각한 원시사회의 내재적인 발전단계를 체계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에 발굴된 석장리 유적은 굴포리 유적과 더불어 남·북한 지역에 구석기유적이 폭넓게 분포한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 뒤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40년 동안, 한국 전체에서 발굴된 유적의 수는 110여 군데(남한 80여 지점, 북한 30여 지점)에 이른다. 지표조사를 통하여 유물이 채집된 곳만 하여도 수백 군데가 넘는다.

남한의 구석기시대 석기는 석장리 유적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고, 그것은 충남지역의 구석기문화를 이해하는데 시발점이 되었다. 197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충남지역의 구석기유적은 석장리에서만 조사되었다. 대전을 포함한 충남지역의 구석기유적이 제법 활발하게 발굴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의 일이다. 석장리 유적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충남지역에서 구석기유적이

발굴된 곳은 10군데 미만이다.

II. 유적 조사와 발굴

1. 금강 유역

1) 공주 석장리 유적(사적 제334호)

1963년 미국의 고고학자 모어(Albert Mohr)가 발견한 이 유적은 1964년부터 1992년에 걸쳐 모두 12차례 발굴되었다. 1964~72년(1-9차)과 1974년(10차)은 연세대학교 박물관, 1990년(11차)과 1992년(12차)은 한국전사문화연구소에 의하여 발굴되었다. 석장리 유적에서는 구석기시대 전기·중기·후기를 비롯하여 중석기시대의 유물이 출토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손보기 1967, 1968, 1970, 1971, 1972, 1973a, 1993; 손보기 등 1994).

전기 구석기층에서는 외날찍개·주먹괭이·자르개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중기 구석기층에서는 전기 구석기층에 비하여 석기의 종류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반암과 같은 새로운 종류의 암질이 석기제작에 활용되었다. 중기 구석기층에서는 자갈돌찍개·주먹도끼·긁개·밀개, 뚜르개·찌르개 등이 출토하였다. 후기 구석기층에서는 다양한 돌감(흑요석·유문암·옥수·수정 등)으로 구성된 석재가 등장하며, 줍돌날석기·밀개·새기개·긁개 등이 나왔다. 후기 구석기층에서는 집자리도 발굴되었다. 중석기층에서는 줍돌날몸돌·새기개·밀개 등이 출토하였다(손보기 1993).

1970년대 초반, 방사성탄소법에 의한 후기 구석기층의 집자리 연대는 BP 20,830±1,880년, 그보다 아래층은 BP 30,690±3,000년으로 측정되었다. 이 두 연대가 나온 층은 첫째와 둘째 토양층의 사이부분에 해당한다. 또한 둘째 토양층구조가 시작되는 지점의 연대는 BP >50,270년으로 나왔다. 11·12차 발굴지점의 퇴적물은 아래부터 강바닥쌓임층, 강가쌓임층, 넘친물쌓임층, 비탈쌓임층으로 덧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동영 등 1994).

2) 공주 마암리 동굴유적

이 동굴은 반포면 마암리의 우대산(해발고도 약 200m)에서 발견되었다.

1967년에 몇 개의 시굴구덩을 조사한 결과, 석영반암을 이용하여 제작된 10여 점의 석기가 출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원용 1967).

3) 공주 내촌리 유적

1999년 한남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발굴되었다. 유적은 금강으로 흘러드는 정안천 언저리에 있다. A지역에서는 첫째 토양층에서 발달한 짙은 갈색 찰흙층에서 30여 점의 석영제 석기가 출토하였다. C지역에서는 첫째 토양층 위에 놓인 갈색 찰흙층에서 30여 점의 석영제 석기가 발굴되었다(한남대학교 박물관 1999).

4) 대전 용호동 유적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차에 걸쳐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에 의하여 발굴되었다(한창균 등 2000; 한창균 2002b). 기반암층 위에 자갈층(6층), 검은 갈색 모래층(5층), 암황갈색 모래질 찰흙층(4층), 황갈색 모래질 찰흙층(3c), 명갈색 찰흙층(3b), 암갈색 찰흙층(3a) 갈색~암황갈색 찰흙층(2층), 겉흙층(1층)이 차례로 쌓였다. 첫째 토양층에서는 3a층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둘째 토양층에서는 4층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이 유적에서는 4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가장 아래쪽의 4문화층(5층과 4층의 경계부분)은 약 10만년 전으로 추정되며, 굽개·흙날·찍개·여러면석기 등이 출토하였고, 돌감의 암질은 대부분 석영류로 이루어진다. 3문화층(3b층)에서는 두 면이 곱게 갈린 석기·슴베찌르개·굽개·흙날·찍개·여러면석기 등이 출토하였다. 이 문화층에서는 석영류 이외에 반암 및 혼펠스로 추정되는 암질이 새롭게 나타난다. 3문화층의 연대는 약 6.5~4만년 전으로 추정된다. 2문화층(3a층)에서는 한 면이 곱게 갈린 판석·슴베찌르개·밀개·굽개·여러면석기 등이 나왔다. 혼펠스로 추정되는 암질의 석기류가 3문화층보다 많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 문화층의 아랫부분에서 채취한 숯 조각은 방사성탄소법에 의하여 BP 38,500±1,000년으로 측정되었다. 3문화층의 연대는 약 4~1.5만년 전 사이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문화층(2층)에서는 석기제작터와 불땀자리가 발굴되었고, 굽개·양끝찌르개·찍개 등이 출토하였다. 이 문화층의 연대는 약 1.5~1만년 전으로 추정된다.

2층(암황갈색 찰흙층)과 3a층(암갈색 찰흙층)의 상부지점에서 각각 AT 화산재(Aira Tanzawa tephra, 始良-丹澤 火山灰, 2.5~2.4만 BP)로 추정되는 유리물질이 검출되었다(早田 勉·新井房夫 2001).

5) 대청호 수몰지역의 재조사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에서는 2001~02년에 걸쳐, 대전 대덕구와 동구에 속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지표조사를 하였다. 대덕구 미호동·삼정동·갈전동, 동구 추동·주산동·세천동 등에서 구석기시대의 석기가 채집되었다. 현재까지 석기가 발견된 곳은 9개 지점이며, 각 지점 언저리에는 대체로 토양층이 발달한 고토양층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근완·서대원 2003).

2. 갑천 유역

1) 대전 구즉동 유적

1991년에 알려진 이 유적은 1992년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발굴되었다. 석기는 대체로 첫째 토양층이 발달한 지층에서 나왔다. 출토한 유물로는 몸돌과 굽개 등이 있다(배기동 등 1992).

2) 대전 둔산 유적

1991년 한국선사문화연구소에 의하여 발굴되었다. 첫째 토양층이 들어 있는 갈색 찰흙층과 그 아래의 자갈층에서 몸돌·망치돌·찍개·굽개·밀개·흙날 등이 출토하였다. 석기의 암질은 석영, 반암, 편마암, 사암 등으로 이루어진다(손보기 등 1995).

3) 대전 노은동 유적

월드컵경기장 건립지역의 노은동 유적은 1998~99년에 걸쳐 한남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발굴되었다(한창균 등 2003). 이 유적은 A지역과 B지역으로 구분되어 조사되었으며, 구석기시대 석기는 두 지역 모두에서 나왔다. A지역의 A-2지구에서 3개의 유물층이 확인되었다. 1유물층(2b층)은 갈색 찰흙층, 2유물층(3a층)은 짙은 갈색 찰흙층, 3유물층은 5층(기반암)과 4층(검은 암갈

색 모래층)의 경계부분이다. 첫째 토양층기는 3a층에 발달하였다. 4층 아랫부분에서 이루어진 방사성탄소법 연대는 BP >54,720년이다. 각 유물층에서 나온 석기를 살펴보면, 1유물층: 격지·수정 조각, 2유물층: 격지, 3유물층: 굽개·흙날·여러면석기 등이다. 2유물층의 격지(2점) 암질은 혼펠스이다.

B지역에서 석기가 출토한 곳은 B-1·2·4지구이며, 퇴적상태와 깊이가 서로 다른 지점에서 3개의 유물층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 B-1지구에서 단일한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 집중분포구역이 조사되었다. 이 구역은 첫째 토양층기보다 위에 쌓인 갈색 찰흙층(2층)에 해당하며, 이 층에서 AT 화산재가 검출되었다(早田 勉 2003). 이곳에서 출토한 석기의 대부분은 혼펠스로 구성된다. 유물 종류로는 쏜쏜날석기·밀개·새기개·굽개·흙날·찍개 등이 있는데, 특히 다양한 형태의 새기개가 출토하여 관심을 끈다. B-3지구의 첫째 토양층기층 상부지점에서 이루어진 방사성탄소법 연대는 BP 22,870±110년이다.

4) 대전 대정동 유적

2000~01년에 걸쳐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에 의하여 발굴되었다. 유물은 첫째 토양층기층이 발달한 지층(암갈색 찰흙층) 위의 짙은 갈색 찰흙층에서 출토하였다. 출토 석기에는 쏜돌날몸돌·툽니날·굽개·흙날 등이 있다. 유물층에서 채취한 숫 조각의 방사성탄소법 연대는 BP 19,680±90년으로 나왔다(이홍종 등 2002). 유물층 아래에 있는 토양층기는 그 상부가 침식작용으로 잘려 나간 모습을 보여준다(김주용 등 2002b). 유물층 내에 작고 둥글둥글한 암갈색의 작은 찰흙 알갱이들이 점점이 박혀 있는데, 이것은 후퇴적과정이 유물층의 지층을 형성하는데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3. 천안 지역

1) 천안 두정동 유적(C·D지구)

천안 지역에서 처음으로 알려진 구석기유적이며, 1998~99년에 걸쳐 충청문화재연구원에 의하여 발굴되었다. C지구의 유물은 둘째 토양층기가 나타나는 적갈색 찰흙층, D지구의 경우는 첫째 토양층기가 나타나는 암갈색 찰흙층에서 출토하였다. C지구는 중기 구석기시대, D지구는 후기 구석기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C지구에서는 몸돌·굵개·흙날·밀개·찍개 등, D지구에서는 망치돌·몸돌·굵개·밀개·찍개·여러면석기 등이 출토하였다. 두 지구에서 발견된 석기의 암질은 석영맥암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규암도 일부 있다(한창균 등 2001).

4. 나머지 지역

지표조사를 통하여 충남지역에서 구석기시대의 석기가 채집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지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서산시: 석남동·일남리·도당리(이용조 등 1991), 간월도리(한창균 등 1997)
- ② 태안군: 창기리·신야리·고남리(이용조 등 1991)
- ③ 당진군: 교로리·초락도리(한창균 등 1997)
- ④ 보령시: 웅도·빙도(한창균 등 1997), 관산리(충남대학교 박물관 1994), 원산도(이필영 등 2002), 관창리
- ⑤ 홍성군: 산성리
- ⑥ 금산군: 용화리·저곡리·천내리·수통리·마전리·백암리·다복리·삼가리·신대리·성곡리(한남대학교 박물관 2000, 2001, 2002)

위에서 소개한 지점 가운데, 웅도·빙도·원산도·간월도·초락도 등의 섬 지역에는 토양층이 발달한 고토양층이 공통적으로 분포한다. 서산 간월도의 경우, 첫째 토양층이 나타난 지점에서 이루어진 방사탄소법 연대는 BP 16,708±250년으로 측정된 바 있다(오경섭 등 1995). 충남 해안지역에 위치한 구석기유적은 과거 해안선의 변화와 구석기인들의 이동관계를 밝히는데 좋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홍성 산성리에서는 좁돌날몸돌, 그리고 보령 관창리 유적에서는 둘째 토양층이 발달한 적갈색 지층에서 주먹도끼와 여러면석기(연세대학교 박물관 편 2001)가 출토하여 주목된다. 보령 일대의 봉당천·대천천·웅천천 주변에 단구가 형성되었는데(황의호 등 1999), 단구 위에 쌓인 고토양층에서 구석기가 발견된다.

Ⅲ. 조사성과의 검토

충남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유적의 대부분은 금강 유역과 금강으로 흘러드는 크고 작은 물줄기 언저리에 자리를 잡고 있다. 또한 천안 두정동 유적과 같이 구릉지대에 형성된 유적도 있다. 아직 정식으로 발굴된 바는 없지만, 충남 해안지역(한창균 2002c)의 여러 곳에서 유물이 채집된 점으로 가늠할 때, 충남지역의 구석기유적은 매우 폭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충남지역의 구석기유적은 1960년대 중반부터 석장리(1964~72년, 1974년, 1990·92년)와 마암리(1967년) 유적을 통하여 알려지기 시작했다. 석장리 유적이 처음 발굴된 이후, 약 25년이라는 기간 동안, 석장리 이외의 다른 유적이 충남지역에서 발굴된 예는 매우 드물다. 1990년대 초에 들어와 비로소 대전 둔산동(1991년)과 구즉동(1992년)에서 구석기유적이 발굴되었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는 천안 두정동 C·D지구(1998~99년), 공주 내촌리(1999년), 대전 노은동(1998~99년)·용호동(1999~2001년)·대정동(2000~01년) 유적 등이 발굴되었다.

다음에서는 충남지역에서 발굴된 구석기유적의 연대측정 결과를 중심으로 몇몇 유적의 형성시기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여기서 유적의 연대문제를 검토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충남지역의 구석기문화를 재구성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발굴된 유적의 형성시기를 제대로 밝히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충남지역에서 발굴된 구석기유적 가운데 연대가 가장 오래된 것은 석장리 유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1970년대 초반, 석장리 유적에서 이루어진 방사성탄소법의 측정결과에 이 유적이 구석기시대에 속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퇴적물에 대한 체분석(손보기 1972), 꽃가루 조사, 나무숯의 수종감정(손보기 1973a) 등과 같은 자연과학방법이 적용되어 이 분야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현재 한국의 구석기고고학에서 자주 논의되고 있는 토양썰기¹⁾의 존재가 처음으로 언급된 곳도 석장리 유적이다(손보기 1973a).

1 갯신세의 고토양층에 나타나는 토양썰기구조의 형성배경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이 제시된 바 있는데, 이 글에서는 그것이 춥고 메마른 시기에 형성되었으며, 가장 위에 있는 첫째 토양썰기는 약 15,000년 전, 그보다 아래의 둘째 토양썰기는 약 65,000년 전에 해당하는 것(이동영 1998)으로 해석한 견해를 받아들인다.

석장리 유적에는 구석기시대 전기부터 후기에 걸치는 유물이 조사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석장리 제2지구의 27지층부터 15지층까지 전기 구석기시대로 해석되었다(손보기 1973b). 석장리 유적에서는 1990년대 초반, 대전-공주 사이의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제1지구의 일부 지점이 발굴되었다. 이 지점에는 2단구로 추정되는 퇴적물 위에 고토양층이 형성되었으며, 고토양층에는 첫째와 둘째 토양층이 발달하여 있었다(이동영 등 1994). 둘째 토양층이 들어 있는 지층의 상부에서 BP >50,270년의 연대가 나온 바 있으며(손보기 1993), 이 연대는 그보다 아래에 있는 강물퇴적층의 시기를 마지막 간빙기로 설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첫째와 둘째 토양층 사이에서 BP 20,830±1,880년(후기 구석기시대 집자리)과 BP 30,690±3,000년(후기 구석기시대 집자리 아래층)의 연대가 측정되었다(손보기 1971). 이것은 석장리 유적에 발달한 첫째 토양층의 형성시기가 BP 3~2만년 전 이후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런 사실은 대전 노은동 유적의 경우(한창균 2000), 첫째 토양층 상부에서 얻은 연대가 BP 22,870±110년이라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서산 간월도리(오경섭 등 1995)에서는 첫째 토양층 상부지점이 BP16,708±250년으로 측정되었다.²⁾

앞에서 언급한 연대값을 서로 비교하여 가늠할 때, 첫째 토양층은 약 3만년 전 이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형성시기는 산소동위원소 2기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추위가 영향력을 끼쳤던 시기, 곧 마지막 빙하의 극성기(LGM, Last glacial maximum)를 반영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그것은 시기상 약 17~15Ka³⁾에 해당한다고 추론된다.⁴⁾ 따라서 첫째 토양층이 발달한 것보다 위에 쌓인 퇴적층의 유물은 후기 구석기시대의 늦은 시기인 약 17~15Ka 이후에 속한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층은 석장리, 노은동, 용호동, 대정동, 내촌리 C지역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으로 고토양층 자체에 대한 연대측정을 진행하여 그와 같은 시기설정이 더욱 자세하게 검증될 필요가 있다.

2 대전 대정동 유적에서는 첫째 토양층 위에 놓인 지층에서 BP 19,680±90년의 연대가 나왔다. 대정동 유적에서 관찰된 퇴적상태를 검토할 때, 이와 같은 연대측정에 이용된 시료는 첫째 토양층의 상부지점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후퇴적작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3 이것은 Heinrich events 가운데 H1에 해당한다(Grousset 2001).

4 이러한 추정은 남양주 호평동 유적에서 얻은 방사성탄소법 연대(BP 22,200±600~16,600±720년)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홍미영 등 2002).

방사성탄소법에 의한 연대측정, 퇴적현상에 대한 지질학적 분석 등과 함께 고토양층에서 검출된 화산재 유리물질의 분석자료는 유적의 형성시기를 논하는데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 충남지역의 구석기유적 중, AT 화산재가 검출된 곳은 노은동과 용호동 유적이다(早田 勉 2003; 早田 勉·新井房夫 2001). 노은동 유적에서는 첫째 토양층기보다 위에 있는 지층, 그리고 용호동 유적에서는 첫째 토양층기층의 상부와 그보다 위에 놓인 지층에서 각각 나왔다. 다시 말해서 첫째 토양층기를 경계로 하여 그 위·아래 지점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다.

일본에서 이 화산재의 분출시기는 약 2.5~2.4만년 전으로 연구되고 있다(早田 勉 2003; 早田 勉·新井房夫 2001). 노은동과 용호동 유적에서 나온 유리물질이 일본 AT 화산재의 분출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퇴적된 것으로 본다면, 앞에서 첫째 토양층기의 형성시기를 약 17~15Ka로 추정한 것과 논리상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에서 분석된 AT 화산재 유리물질은 일본과 달리, 일정한 지층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은동과 용호동 유적의 퇴적층에서 검출된 화산재가 그 퇴적층의 절대적인 형성시기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두 유적에서 AT 화산재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퇴적층의 형성시기가 약 2.5~2.4만년 전 이후라는 점을 상대적으로 알려주지만, 한국의 고토양층에서 나온 AT 화산재의 퇴적연대가 곧바로 약 2.5~2.4만년 전임을 지시하지는 않는다(김주용 등 2000).

충남지역의 구석기유적 중, 석장리·용호동·노은동 유적 등에서는 시기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문화층이 발굴되었다. 석장리 유적의 후기 구석기시대 집자리는 약 2만년 전으로 측정되었다. 이곳에서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쯔돌날몸돌의 존재가 드러났으며, 그 제작수법은 일본의 유우베쓰기법(湧別技法, Yubetsu technique)과 공통된 특징이 있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Sohn 1968). 집자리층에서는 흑요석, 유문암, 옥수, 수정 등이 새로운 암질의 돌감으로 석기제작에 활용되었다.

용호동 유적의 2문화층 하부지점의 연대는 후기 구석기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BP 38,500±1,000년으로 측정되었다. 이 측정값을 기준으로 할 때, 3문화층은 중기 구석기시대 늦은 시기로 추정된다. 2·3문화층에서는 혼펠스류로 만

든 스페찌르개가 출토하여 많은 관심을 끈다. 특히 3문화층의 스페찌르개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 아시아 지역에서 출토한 스페찌르개 가운데 연대가 가장 앞서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아울러 3문화층에서 출토한 갈린 석기는 다른 나라에서 찾기 어려운 유물 가운데 하나이다. 용호동 유적에서는 문화층에 따라 선택된 암질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4문화층은 거의 대부분 석영류인데, 3문화층에서는 반암류가 나타나며 드물게 혼펠스류도 들어 있다. 2문화층에서는 혼펠스류의 양이 상대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특징은 잔손질된 석기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아래 문화층에서 위 문화층으로 갈수록 잔손질된 석기의 종류가 많아지는 경향을 띤다. 용호동 유적과 같은 변화의 모습은 석장리 유적에서도 관찰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탄강·임진강 유역과 다르게 충남지역에서는 양면석기(주먹도끼)와 같은 석기 종류가 많지 않다. 석장리와 관창리 유적에서 중기 구석기시대로 추정되는 양면석기가 나왔으나 그 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 관창리 유적의 주먹도끼는 날을 다듬는데 무른 망치가 이용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목을 끈다.

지금까지 조사된 충남지역의 구석기유적 가운데, 시기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구석기시대 중기와 후기의 문화층이다. 그러나 유적에 따라 편년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예가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만을 바탕으로 충남지역의 구석기문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때때로 석기의 형식분류 자체도 지나치게 주관적인 방향으로 설정되어, 전체 유적의 상호비교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IV. 앞날의 과제

구석기시대 유물은 거의 대부분 땅 속 깊이 묻혀 있다. 더욱이 구석기인들은 사냥채집활동을 기반으로 이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터전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점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침식작용과 같은 자연현상, 도로개설·농지정리·대단위 주거공간 조성 및 산업시설의 건립 등에 따라 갱신세의 퇴적층이 인위적으로 지표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지표조사를 통하여 구석기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 특히 구제발굴의 전 단계로 지표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사기간과 조사비용에 제

약을 받는 점도 구석기유적의 발견에 큰 걸림돌이 된다. 아울러 구석기시대의 펜석기를 제대로 판별해낼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점도 문제거리 가운데 하나이다.

지표상에 유물⁵⁾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구석기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간접으로 알려주는 요소는 무엇인가? 대체로 지금까지 한국에서 발견된 구석기시대 한데유적은 그 지점의 퇴적양상과 입지조건에 있어 몇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첫째, 구석기유물이 출토하는 퇴적층은 거의 모두가 갯신세의 고토양층에 해당한다. 갈색 또는 적갈색을 띠는 고토양층 안에는 언땅트기에 의한 토양구조가 흔히 발달한다. 토양썰기라고 부르는 이 구조는 수직적으로 썰기모양, 그리고 수평적으로 거북등처럼 다각형의 형태로 갈라진 특징을 잘 보여준다. 둘째, 고토양층은 단구퇴적층 위에 놓여 있는 예가 많은데, 때에 따라 단구가 형성되지 않은 비교적 평탄한 구릉지대에도 분포한다. 셋째, 구석기유적은 서로 다른 물줄기가 모이는 두물머리 언저리에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석봉정수장 건설과정에서 알려진 용호동 유적을 처음 조사할 당시, 지표에 드러난 구석기유물은 한 점도 없었다. 그러나 금강과 용호천이 만나고, 주변지역이 비교적 평탄한 구릉지대로 형성되었고, 지표 가까이에 고토양층이 존재하며, 용호동과 인접한 금강 건너편의 충청북도 현도면 노산리에서 유물이 채집되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 유적에 대한 시굴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약 10만년 동안 다양한 환경 속에서 쌓인 150cm 정도 두께의 퇴적층에서 구석기시대 중기부터 후기에 걸치는 4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다.⁶⁾

지표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구석기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시굴조사 단계이다. 이 단계를 거치며 구석기유적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확인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토양썰기구조가 발달한 고토양층이 확인되었다면, 구석기시대의 유물이 발견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5 지표조사에서 유물을 채집하였을 때, 가능하면 석기에 붙어 있는 흙을 깨끗하게 씻어 버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씻더라도 그 흙의 일부는 별도로 보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석기에 붙어 있는 흙은 그 유물의 출토지층을 확인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약 350평 규모의 발굴 대상면적(유물 집중분포구역은 200평 미만)을 조사하는데 모두 8개월 정도 걸렸다. 이 발굴에 소요된 기간은 다른 지역의 구석기유적을 조사하는데 참고가 된다. 여기서 이와 같은 점을 언급한 것은 용호동 유적 발굴 당시, 발굴 소요기간에 따른 발굴비를 충분히 책정하지 못하여 발굴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충청문화재연구원의 경우, 시굴구덩에 대한 현장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천안 두정동의 구석기유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비록 많은 석기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충남발전연구원이 청양도립대학 학사촌 건립지역의 시굴조사에서 고토양층에 대한 조사를 지속한 점도 그와 같은 노력의 결과이다.

이제는 고토양층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넓어졌으며, 이 덕택에 구석기유적이 발견되는 예가 늘어나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지나간 일이지만, 고토양층이 대규모로 분포하였던 보령 관창리 지역에서 구석기유적의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거창 정장리 유적(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2)에서는 수많은 원삼국시대의 무덤이 발굴되었고, 유구는 고토양층을 파서 축조되었다. 이 고토양층에서 많은 양의 구석기시대 유물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성과는 충남지역의 고고학 유적조사에서도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구석기유적의 발굴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제간의 공동협력을 구축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발굴 초기부터 이루어져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구석기유적에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정보는 고고학, 지질학, 고생태학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고고학은 유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지질학은 유적의 형성시기와 그 배경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주어진 환경조건에서 삶을 영위하였던 구석기인들의 생활모습과 변화과정을 밝혀내야 한다.

다양한 연대측정법(예를 들어, 방사성탄소법 · 고지자기법 · 열형광법 · 광자극형광법 · 화산재분석법 등)의 적용은 유적의 연대와 지층의 형성시기를 추론하는데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 그러나 각 방법은 유적의 특징과 시료의 성격에 따라 달리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래는 한 지층에서 얻은 하나의 절대연대측정값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 지층의 형성시기를 가늠하는 잣대로 활용된 예가 많았다. 그러나 유적의 형성과정에서 후퇴적작용의 문제가 최근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숫 조각⁷⁾

7 구석기유적을 발굴하는 동안, 숫 조각이 나왔다면, 이 시료에서 얻을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수종 감종과 나이테의 성장과정을 통하여 당시의 환경조건을 이해한다. 둘째는 여러 종류의 나무 가운데 특정한 나무 종류가 인위적으로 선택되었는지를 밝힌다. 셋째는 이 시료를 가지고 방사성탄소법에 의한 연대측정을 한다. 만약 분석

을 채취하더라도 고고학, 지질학, 연대측정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연대측정에 앞서, 시료의 정확한 성격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장책임자는 유적의 발굴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자연과학분야의 지식을 충분히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석기유적 조사에서 유물과 유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인공물을 감싸고 있는 바탕물질, 곧 퇴적물 속에는 과거 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화석화되어 남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화석화된 정보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려면 의료비용이 필요하듯이, 화석화된 정보를 되살리기 위해서 그에 따른 분석비용이 적절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유적 발굴에 앞서, 예상되는 분석내용을 미리 세워 항목별 예산이 짜임새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남한 지역에서 발굴된 전체 유적의 수는 80여 군데에 이르며, 몇몇 유적에서 이루어진 성과는 한국의 구석기시대를 새롭게 조명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현재 한국의 구석기고고학에서 풀어야 할 선결과제는 ① 토양 췌기의 형성배경과 그 시기, ② 화산재 유리물질의 검출과 그 물질의 시기적인 성격, ③ 서로 다른 높이에 발달한 단구의 형성시기, ④ 고토양층의 퇴적 성격과 토양발달의 과정, ⑤ 유물과 문화층의 시기적인 구분 ⑥ 석기의 형식 분류에 대한 시각의 차이 등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점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국 구석기문화의 시기적인 변천과정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라는 커다란 테두리 속에서 한국의 구석기시대가 차지하는 의미를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요컨대 한국의 구석기고고학이 안고 있는 문제는 바로 충남지역의 구석기유적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구석기유적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발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문인력의 양성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주제별 세미나 개최, 전문가 초청강의, 연수과정 등이다. 이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일수록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도 그만큼 증가할 것이다. 끊임없는 자체 교육의 활성화는 발굴기술의 습득과 개발, 합리적인 발굴조직의 구성과 운영, 연구능력의 향상과 자료축적에 밑거름이 된다.

용 시료의 양이 제한되어,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선택되어야 한다면, 선택의 기준을 세우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발굴 현장책임자의 안목이다.

내년은 석장리 구석기유적이 발굴된 지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불혹(不惑)’의 나이에 접어든 충남지역 구석기고고학은 이제 그 동안의 연구성과에 힘입어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충남지역의 구석기문화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참고문헌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2. 「거창 정장리유적 문화유적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 김근환·서대원 2003. 「대청호 수몰지역의 신발견 유적과 유물: 대전시 대덕구·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고고와 민속』 6(인쇄중). 한남대학교 박물관.
- 김주용·양동윤 2000. 「제4기 퇴적층내 화산유리물질 연구방법 논의」, 『한국구석기학보』 2, 86-87쪽.
- 김주용·양동윤 2002a. 「한국 구석기유적의 지형과 지질」, 『우리나라의 구석기문화』, 51-74쪽. 연세대학교 출판부.
- 김주용·양동윤·오근창·김진관 2002b. 「대전 대정동유적 제4기 지질연구」, 『대정동유적: 대전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지구내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431-487쪽.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 김원용, 1967. 「공주마암리동굴유적예보」, 『역사학보』 35·36, 26-41쪽.
- 박영철, 1992. 「한국의 구석기문화: 유적의 현황과 편년문제」, 『한국고고학보』 28, 5-130쪽.
- 배기동, 1992. 「구석기시대」, 『한국 선사고고학사』, 9-75쪽. 도서출판 까치.
- 배기동·이동영 1992. 『구석동구석기유적시굴조사보고서』. 한양대학교 박물관·문화인류학과.
- 손보기, 1967. 「층위를 이룬 석장리 구석기문화」, 『역사학보』 35·36, 1-25쪽.
- 손보기, 1968. 「석장리의 자갈돌 찍개 문화층」, 『한국사연구』 1, 1-62쪽.
- 손보기, 1970. 「석장리의 새기개·밀개 문화층」, 『한국사연구』 5, 1-46쪽.
- 손보기, 1971. 「석장리의 후기 구석기시대 주거지」, 『연세논총』 9, 3-57쪽.
- 손보기, 1972. 「석장리의 전기·중기 구석기 문화층」, 『한국사연구』 7, 1-58쪽.
- 손보기, 1973a. 「석장리의 후기 구석기시대 집자리」, 『한국사연구』 9, 3-57쪽.
- 손보기, 1973b. 「구석기문화」, 『한국사』 1, 11-46쪽. 국사편찬위원회.
- 손보기, 1993. 『석장리 선사유적』. 동아출판사.
- 손보기·장호수·조태섭·홍현선 1994. 「구석기·중석기 문화층의 유적과 유물」, 『석장리 선사유적: 11차-12차발굴보고』, 73-120쪽. 한국선사문화연구소·충청남도 공주군.
- 손보기·박영철·장호수 1995. 「구석기시대 유적 조사」, 『둔산』, 9-44쪽. 충남대학교 박물관.
- 연세대학교 박물관 편 2001. 『한국의 구석기』. 연세대학교 출판부.
- 심정보, 2002. 「2001년도 고고학적 조사와 그 성과」, 『대전문화』 11, 351-384쪽.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 오경섭·박용안·김여상 1995. 「천수만 간월도층의 퇴적후 변형상(Cryoturbation)으로 해석되는 제4기 최후빙기의 한반도 서해안의 고환경」, 『제4기학회지』,

43-60쪽.

- 이동영, 1993. 「지형과 지질」, 『금강지(상)』, 94-106쪽. 충청남도 · 한남대학교.
- 이동영, 1995. 「선사유적지층의 형성시기와 고환경해석을 위한 지질연구」, 『한국상고사학보』 20, 521-546쪽.
- 이동영, 1997. 「지형 및 지질」, 『도서지(상)』, 3-33쪽. 충청남도 · 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 이동영, 1998. 「지질학적 자료의 분석」, 『고고학연구방법론』, 257-302쪽.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동영 · 김주용, 1995. 「대전 둔산 선사유적의 지질조사」, 『둔산』, 45-52쪽. 충남대학교 박물관.
- 이동영 · 김주용, 1994. 「석장리 선사 유적의 지질환경」, 『석장리 선사유적: 11차-12차발굴보고』, 32-57쪽. 한국선사문화연구소 · 충청남도 공주군.
- 이용조, 1993. 「선사유적」, 『금강지(하)』, 7-69쪽. 충청남도 · 한남대학교.
- 이용조 · 윤용현, 1991. 「선사분야」, 『서산 · 태안 문화유적(상)』, 44-233쪽. 서산문화원 ·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 이필영 · 한창균 · 김근완 · 구자진, 2002. 「원산도의 선사시대 유적과 유물」, 『고고와 민속』 5, 5-62쪽.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 이흥종 · 최종택 · 박성희, 2002. 『대정동 유적: 대전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지구내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 충남대학교 박물관, 1994. 「조사 기록 2」, 『관산리 약보고서』, 25-31쪽. 고려대학교 박물관 · 충남대학교 박물관 · (주)대우.
- 최삼용, 2002. 「금강유역의 구석기유적」, 『우리나라의 구석기문화』, 153-176쪽. 연세대학교 출판부.
- 한남대학교 박물관, 1999.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건설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 보고서」. 한남대학교 백제문화박물관 ·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주식회사.
- 한남대학교 박물관, 2000. 『금산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군북면 · 제원면 · 부리면』(미간행). 한남대학교 박물관 · 금산문화원.
- 한남대학교 박물관, 2001. 『금산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추부면 · 복수면 · 진산면』(미간행). 한남대학교 박물관 · 금산문화원.
- 한남대학교 박물관, 2002. 『금산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금성면 · 금산읍 · 남일면 · 남이면』(미간행). 한남대학교 박물관 · 금산문화원.
- 한창균, 1999. 「1998년 대전지역 유적지 발굴」, 『대전문화』 8, 225-244쪽.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 한창균, 2000. 「대전 월드컵경기장 건립지역의 구석기유적」, 『고고학부 발표자료집』, 1-19쪽. 제43회 전국역사학대회.
- 한창균, 2002a. 「금강의 구석기 유적」, 『금강: 최근 발굴 10년사』, 162-167쪽. 국립공

주박물관.

- 한창균, 2002b. 「대전 용호동 구석기유적」, 『동북아세아구석기연구』, 163-172쪽. 연
천군 ·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 한창균, 2002c. 「선사시대 문화자원과 해양사: 충청편」, 『한국의 해양문화』 2(서해해
역, 상), 294-320쪽. 해양수산부.
- 한창균 · 김기태, 1997. 「문화유적」, 『도서지(중)』, 3-131쪽. 충청남도 · 한남대학교 충
청문화연구소.
- 한창균 · 김근완 · 최삼용, 2000. 「대전 석봉정수장 건설지역 1·2지구의 문화유적 발
굴」, 『실학사상연구』 15 · 16, 31-57쪽. 원유한 교수 정년기념호(상), 무악실
학회.
- 한창균 · 홍미영 · 최삼용 · 김기태, 2001. 「두정동 구석기시대의 유적과 유물」, 『천안
두정동 유적(C·D지구)』, 69-116쪽.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 천안시경영개발
사업소.
- 한창균 · 김근완 · 류기정 등, 2003. 『대전 노은동 유적: 대전 월드컵경기장 건립지역』
(인쇄중).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 홍미영 · 김기태 · 홍성수 · 김종현 · 윤승희, 2002. 「남양주시 호평동 구석기유적 발굴
조사 개보」, 『해양 교류의 고고학』, 137-153쪽. 국립제주박물관, 제26회 한국
고고학전국대회.
- 황의호 · 이동영 · 김주용, 1999. 「서해안 대천지역의 제4기 지질 및 지형발달」, 『한
국 제4기학 연구』, 142-154쪽. 도서출판 해안.
- 早田 勉, 2003. 「老隱洞遺跡におけるテフラ分析」, 『대전 노은동 유적: 대전 월드컵경
기장 건립지역』(인쇄중). 한남대학교 박물관.
- 早田 勉 · 新井房夫, 2001. 「大田市龍湖洞遺跡におけるテフラ分析」(미간행).
- Grousset, F. 2001. Les changements abrupts du climat depuis 60,000 ans.
Quaternaire 12(4), pp. 203-211.
- Sohn, Pow-key 1968. 「Grattoir-burin caréné Discovered at Sokchang-ni, Korea」,
『동방학지』 9, 125-138쪽.